실무 공무원을 위한 생성형 AI 실전 활용 가이드

질문 공식부터 자동화 기능까지, 행정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AI 도입 전략

지자체 실무 담당자 교육용

2026 AI 최신 트렌드 반영

NotebookLM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AI는 기획과 보고서 작성을 돕는 실무 보조 도구로 진화함.

과거: 단순 검색 및 문답 도구

OBSOLETE PARADIGM - ARCHIVE

- 단발성 정보 검색 및 단답형 응답 수신
- 심심풀이 대화 수준의 제한적 활용
- 텍스트 타이핑 기반의 수동적 지시

현재: 디지털 행정 보좌관

ACTIVE PARADIGM - DEPLOYED SYSTEM

- 심도 있는 토론 및 최종 산출물(보고서 등) 생성
- 음성 대화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논리 보완
- 문맥을 이해하고 업무를 능동적으로 보조

[핵심 시사점] 업무 환경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기획 및 행정 업무의 생산성 혁신 필요.

NotebookLM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4대 주력 AI 모델이 경쟁 중임

ChatGPT (OpenAI) [범용성 및 이미지 특화]

- 가장 오래된 모델로 전반적인 작업 수행 능력 우수함
  ↳ 포스터, 인포그래픽 등 시각 자료 생성 기능 탁월함

Gemini (Google) [생태계 연동 및 가성비]

- 구글 문서, 드라이브, 유튜브 등 자사 데이터 연동성 우수함
  ↳ 무료 버전의 기능이 강력하며 코딩 및 정보 요약에 적합함

Claude (Anthropic) [추론 및 논리적 글쓰기]

- 가장 인간다운 문장력을 구사하며 논리적 추론에 특화됨
  ↳ 기획서, 행정 보고서 작성 및 장문 분석에 최적화됨

Grok (xAI) [실시간 데이터 및 트렌드]

- X(트위터)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여론 및 동향 파악 유리
  ↳ 민원 트렌드 분석 및 최신 이슈 추적에 강점 보유

[핵심 시사점] 각 AI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 필요.

NotebookLM

행정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AI 모델을 교차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행정 업무 유형	최적 AI 모델
[보고서/공문서 초안 작성 및 검토] →	Claude (논리적 구조화, 자연스러운 글쓰기 우수)
[시민 대상 인포그래픽/행사 포스터 기획] →	ChatGPT (강력한 이미지 생성 능력 활용)
[기존 행정 문서 연동 및 대량 데이터 요약] →	Gemini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문서 생태계 연동성)
[관내 최신 여론 및 실시간 민원 트렌드 파악] →	Grok (소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분석)

[전략 제언]: 무료 버전으로 다수 모델을 업무에 테스트한 후, 부서별 실무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델 1개를 선정하여 유료 구독 권장.

NotebookLM

음성 대화 기능을 활용하면 브레인스토밍부터 기획서 초안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함.

1단계: 상황 부여 및 발화

-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체적 상황 설정

예: 지금부터 신규 정책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 나와 심도 있게 토론하자.

2단계: 심층 문답 및 논리 보완

- 음성으로 대화하며 아이디어 구체화 (문맥 유지)

예: 그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

3단계: 문서화 지시 및 산출

-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최종 문서 형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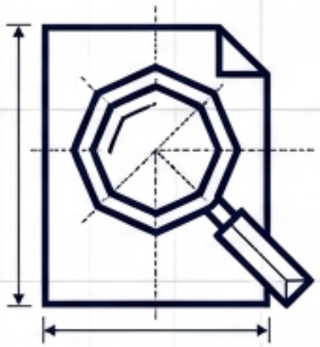
예: 지금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내일 회의용 브리핑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줘.

[효과]: 타이핑 시간 단축 및 AI의 추론 능력을 통한 기획의 논리적 허점 사전 차단.

NotebookLM

숨겨진 '심층 리서치'와 '가이드 학습' 기능을 통해 전문적인 정책 조사와 신규 지식 습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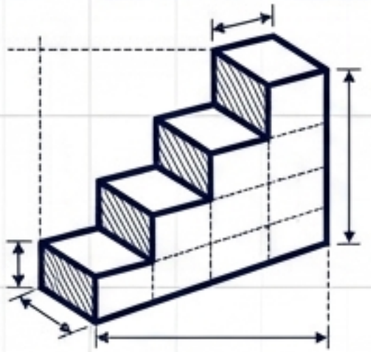
심층 리서치 (Deep Research)



[작동 방식]
- 단발성 검색이 아닌, AI가 2분~30분 이상 스스로 웹을 탐색하며 꼬리를 무는 심도 있는 조사 수행.

[행정 적용]
-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 신규 정책 도입 타당성 및 해외 시장 조사 시 활용.

가이드 학습 (Guide Learning)



[작동 방식]
- 정답을 즉시 주지 않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사용자의 단계별 이해를 유도함.

[행정 적용]
- 낯선 경제 용어, 신조어, 신규 개정 법령 등을 실무자가 완벽히 숙지해야 할 때 유용함.

NotebookLM

예약된 작업(루틴) 및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 매일 반복되는 정보 수집을 자동화할 수 있음.

[반복 작업의 자동화: 루틴 설정]

조건 설정
특정 시간 및
맞춤형 주제 지정

AI 작동
예: 매일 오후 3시
관내 언론 보도 요약

자동 수신
지정된 시간에 리포트
생성 및 메일 연동

[에이전트 (Agent) 기능의 활용]

- 개념: 단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업무용 앱과 연동하여 AI가 직접 작업을 실행함.
- 활용 예시: 내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송해 줘.
- 특징: 과거 대화 맥락을 기억하여 연속성 있는 맞춤형 비서 역할 수행.

NotebookLM

명확한 상황 부여와 행정 전문 용어의 사용이 고품질 AI 산출물을 결정함.

[상황과 맥락 제공]

- 단순 지시 지양, 목적과 배경 상세 서술
- (Bad) 시민 행사 기획안 써 줘
- (Good) 2030 대상 취업 지원 행사이며, 예산은 1천만 원인 상황에서의 기획안 작성

+

[행정 전문 용어 사용]

- 실무 은어 사용 시 AI가 사용자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함
- 전문 용어 사용 여부에 따라 답변 깊이 급상승

+

[구체적 지시와 일관성]

- 문서의 형식, 분량, 어조(Tone) 명확 지정
- 일관된 톤으로 지시하여 맥락 이탈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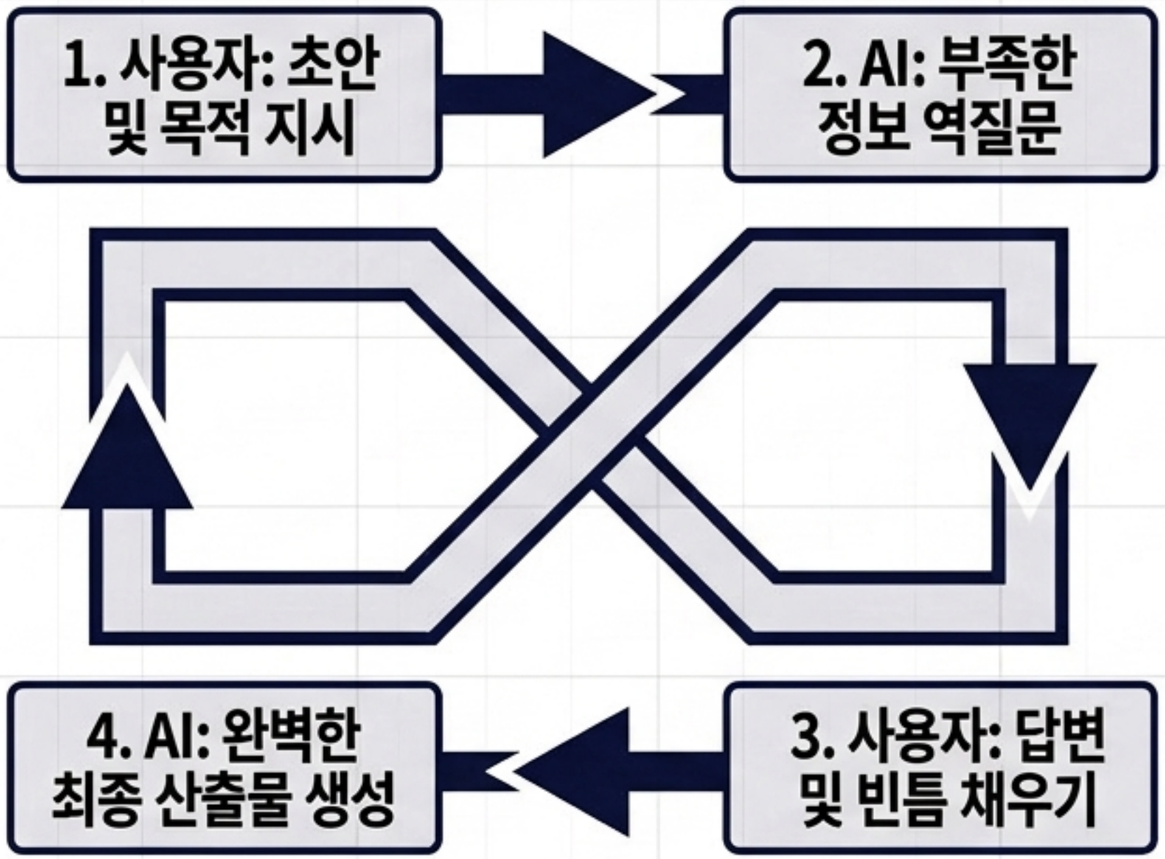
=

[고품질 행정 문서 도출]

NotebookLM

AI가 지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역으로 질문하게 만들면 기획의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함.

[Ask Before Answer 피드백 루프]



실전 프롬프트 활용 1 (최적 프롬프트 도출)

내가 OO 정책 보고서를 쓰려고 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나한테 어떤 명령어를 입력받아야 하는지 그 '프롬프트'를 먼저 제시해 줘.

실전 프롬프트 활용 2 (기획안 빈틈 보완)

내 요청에 빠진 정보가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추가로 10가지 질문을 먼저 해 줘.

효과: 역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자체가 실무자의 브레인스토밍을 구조화시켜 본원적 기획력을 상승시킴.

NotebookLM

생성형 AI의 전략적 도입은 단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정책 기획의 질적 향상을 견인함.

[스마트 행정 혁신]

단순 업무 시간 단축

- 정보 검색 및 초안 작성 시간 최소화
- 루틴 및 에이전트 자동화로 피로도 감소

정책 기획의 고도화

- 딥 리서치를 통한 심도 있는 논리 구축
- 객관적 데이터 기반 신뢰성 확보

실무자 본원적 역량 강화

- 프롬프트 구조화 훈련을 통한 사고력 배양
- 역질문을 통한 기획 공백 최소화

AI는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강력한 '디지털 보좌관'입니다.
업무 목적에 맞는 최적의 툴 선택과 명확한 지시(프롬프팅)가 행정 혁신의 핵심입니다.

NotebookLM